

# 정부 · 여당 헌법 훼손 행위 강력 규탄

전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 “국민주권과 헌법 무시하는 위험적 행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작금의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공동 담화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임의로 공동 행사하겠다는 발상으로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역설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2항)”, 이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단언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자의적으로 나누고 행사하려는 시도

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대통령은 즉각 직무를 중단하고 헌법적 절차를 따라서 탄핵 절차를 포함하여, 헌법이 정한 대로 국민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권력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며, 위험적 비상계엄 논란과 권력 남용, 국민을 호

도하는 공동 담화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여야는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해 혼란을 해결해야 하고 정치권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당리당락을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여야가 함께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고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작금의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공동 담화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임의로 공동 행사하겠다는 발상으로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역설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2항)”, 이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단언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자의적으로 나누고 행사하려는 시도

## 우범기 전주시장, 1994 특별노선 타고 시민과 전북현대 응원

대중교통 직접 이용하여 시민들과 소통 · 승리 염원

우범기 전주시장이 1994 특별노선을 타고 전주시민들과 함께 전북현대모터스FC의 승리를 위해 함께 응원전에 나섰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모터스FC와 서울이랜드FC의 승강전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에서 1994 특별노선을 이용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전북현대의 승리를 염원했다.

우 시장은 이날 오후 전북대학교 인근 덕진성당 정류장에서 1994 특별노선 버스를 기다리는 축구팬들과 악수하며 전북현대모터스FC의 승리를 함께 응원했다.

우 시장은 이어 1994 특별노선 버스에 탑승해 시민들과 함께 경기장으로 이동했으며, 버스에서 하차한 후 경기장까지 함께 걸어가며 승리를 열망하는 응원행렬에 동참했다.

“1994 특별노선”은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북현대의 주말 홈경기 날마다 많은 시민과 축구팬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번 경기를 위해 시는 1994 특별노선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총 14대의 시내버스와 2대의 마을버스를 투입했다.

시는 앞으로도 교통체증 해소와 축구팬의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지원을 꾸준히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이날 1994 특별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소통하며 “이번 승강전에서 전북현대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한다”면서 “1994 특별노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경기장 주변의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대중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모터스FC와 서울이랜드FC의 승강전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에서 1994 특별노선을 이용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전북현대의 승리를 염원했다.

교통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현대모터스FC는 앞선 1차전에서 2:1 승리를 거뒀으며, 이날 경기에서도 홈경기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은 시민과 축구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 2:1 승리를 기록해 K리그1에 잔류하게 됐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명예도로명 사용기간 5년 연장

전주시는 내년 1월 5일 사용기간 만료가 예정됐던 전주시역 명예도로명 사용을 2030년 1월 5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명예도로명은 실제로 사용되는 법적 도로명은 아니지만 지역적 문화와 특징을 대표하고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부여되는 도로명 ‘별칭’이다.

전주시역에서는 현재 △얼굴없는천사의거리 △인쇄문화거리 △국민연금로 등 총 3개의 명예도로명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연장되는 명예도로명은 얼굴없는천사의거리와 인쇄문화거리다.

이 가운데 ‘얼굴없는천사의거리’는

노송동에서 익명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을 본받고 그 뜻을 확산·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인봉로 일부 구간이 해당된다.

또한 경원동 소재 현무2길·3길 일부 구간에 해당하는 ‘인쇄문화거리’는 인쇄업종 집산화 지역을 인쇄특화거리로 지정해 지역경제 활로 기대 및 업계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월 6일 명예도로명이 부여됐다.

시는 이들 명예도로명의 사용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전주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명예도로명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119 다매체 신고 방법 홍보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위급상황에 대비해 문자, 영상, 앱 등을 활용한 119 다매체 신고 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문자 및 사진, 119신고앱,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119종합상황실에 신고하는 신고방법으로 2011년부터 소방청이 제공하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처음 서비스를 도입할 당시에는 음성신고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외국인·다문화가정 및 노령층 등에 다양한 신고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일반 시민들의 이용 또한 크게 늘어남에 따라 대형재난 발생 시 신고폭주로 인한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는데에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흔히 알고 있는 음성전화와 다르게 문자 신고는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영상통화로 접수하면 119종합상황실로 연결돼 정확한 현장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앱 신고는 ‘119신고’ 휴대폰 앱을 설치한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신고 내용을 전송하면 되고, GPS 위치 정보가 119종합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며 산악사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김옥기 기자

## 전주남로타리클럽,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봉사 펼쳐

전주남로타리클럽(회장 오기영)은 지난주 노송동(동장 채원선)을 방문하여 관내 주거 취약계층 가구에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노송동주민센터에 노후된 주거환경으로 수리가 시급한 취약계층 1가구를 추천받아 전주남로타리클럽 회원 및 전문업체가 도배·장판 교체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새마을부녀회 회원도 청소 및 물품 정리를 위해 봉사에 함께 참여했다.

오기영 회장은 “이번 봉사가 어르신 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



시는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꾸준한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